“기업 연계 창조적 생태계 조성해야 에너지밸리 성공”

빛가람에너지밸리 성공전략

혁신도시를 혁신하다

4 에너지밸리 선결 과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빛가람에너지밸리’는 한마디로 광주·전남권 전력산업 벨트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위한 혁신구역이다. 애초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게 옮겨 온 공공기관과 지역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거점이 에너지밸리다. 국내 송전, 변전, 배전 등 전력기업들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에너지밸리의 역할이다.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해당 기업의 의견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밸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향후 7~1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야 한다. 이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지역 전문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2회에 거쳐 살펴보고 에너지밸리의 선결 과제를 짚어본다.

기업 유치 위해 입지·인력·R&D·세제 지원 등 필요

“에너지밸리 활성화 위해 정부 정책적 지원” 36.1%

“10년 이내 에너지밸리 실질적 효과 거둘 것” 35.3%

빛가람에너지밸리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문제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국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칫 기업만 모아 놓는 집적화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업과 연구소, 학교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며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고 인력도 양성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상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남발전연구원의 지역 전문가 설문에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업·지자체·연구소에서 119명이 참여했다.

먼저 에너지밸리 구축을 위한 빛가람혁신도시의 여건과 미래잠재력을 묻는 질문에는 산업시설 인프라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산·학·연·관 연계협력 가능성과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 가능성 순으로 답했다. 산업시설 인프라가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밸리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또 차차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전문 인력이 확보가 가능해져 창업과 강소기업 육성도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이 같은 가능성이 미비하고, 2020년 이후에 잠재 가능성이 폭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밸리에 어울리는 슬로건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52.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너지산업벨트’(30%), ‘한국의 실리콘밸리’(5%), ‘창조경제 혁신구역’(4.2%), ‘기술특구 및 과학타운’(0.8%) 순이었다.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가들은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창조적 생태계 조성’(50.4%)을 꼽았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27.7%), ‘에너지 정책과 R&D 연계 활성화’(16%),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제공 체계 구축’(5%), ‘일과 주거가 공존하는 쾌적한 정주 환경 개선(5%) 등도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를 위한 우선 정책도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밸리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는 ▲입지 지원 ▲인력 지원 ▲R&D 지원 ▲세제 지원 ▲행정 지원 ▲금융 지원 ▲정보 지원 ▲사업 지원 순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입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중요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36.1%)이라고 답했다. 기업 이전이 지지부진할 수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이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실패한 기업의 지방 이전 사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프라 구축 및 연계’(16.8%),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11.8%), ‘연구개발 기반 여건 확충’(10.1%) 순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에너지밸리의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단순히 기업체 몇 개 이주하는 조성에서 그치지 않고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대기업·중견기업 유치’(47.1%)가 가장 중요하고, ‘지역특화 분야와 연계한 선택과 집중’(19.3%), ‘입주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10.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산업에 도전할 자금력을 갖춘 강한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과 연계해야 한다.

또 이들은 ‘고품격 자족형 복합산업도시 환경’(10.9%), 에너지 인재양성과 특성화대학 설립’(9.2%), ‘지식 정보 교류·융합 활성화’(0.8%), ‘수평적 의사결정 협의 기구 조성’(0.8%)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에너지밸리를 구축할 참여 주체도 중요하다고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공간적 범위로 ‘혁신도시 주변 광주·전남 산업단지 모든 구역을 포함해야 한다’(49.6%)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혁신도시 나주 인근 산단까지 포함’(30.3%),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역만 포함’(7.6%), ‘지리적 범위에서 벗어나 광역적 개방형 구역 설정’(7.6%) 순으로 답했다.

많은 전문가는 에너지밸리에 참여한 구역을 혁신도시로 제한하지 말고 인근 산단까지 확대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밸리가 지역경제 혁신구역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도 다양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에너지밸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시점을 ‘10년 이내’(35.3%)로 내다봤고, ‘5년 이내’(28.6%), ‘7년 이내’(21%)로 답했다. 반면 ‘10년 이상’(13.4%)이라고 답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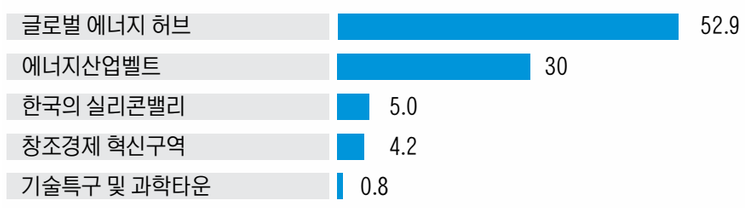
이번 설문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은 에너지밸리 구축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주체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에너지밸리는 나주를 포함해 광주·전남 주변 산단을 포괄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박웅희 책임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공공기관과 동반이전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어 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 “에너지밸리는 중장기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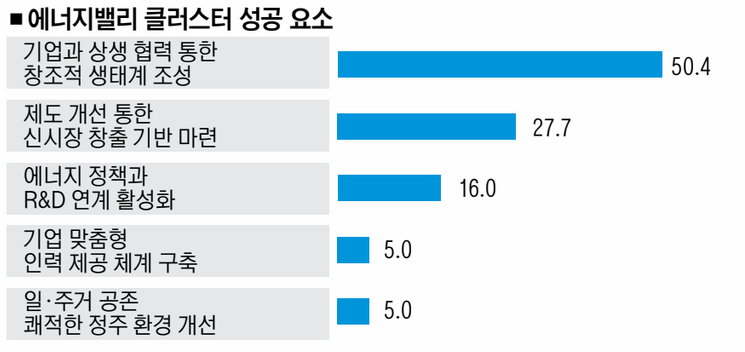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업·지자체·연구소 119명 설문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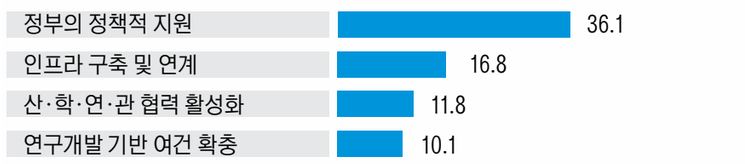
■ 에너지밸리에 어울리는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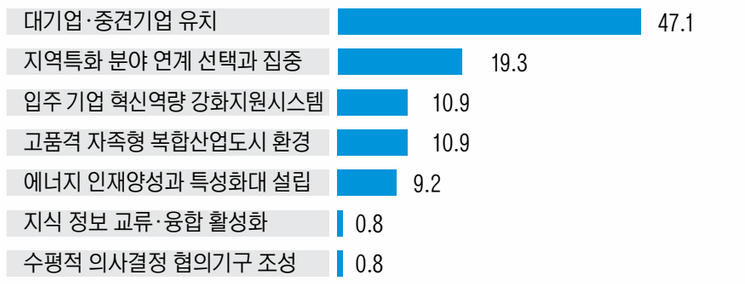
■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성공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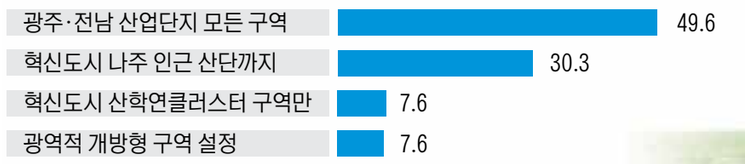
■ 에너지밸리 활성화 위한 필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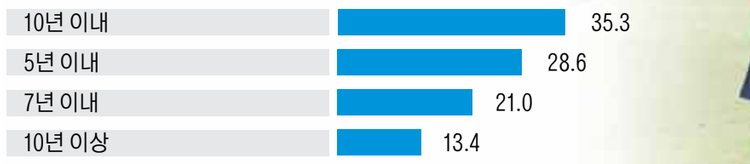
■ 에너지밸리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 에너지밸리 조성 위한 공간적 범위



■ 에너지밸리 실질적 효과 시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함덕해수욕장 해변 수익형 호텔
회사 보유분 마지막 특별분양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풀장,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올레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8번지(상록회관-라페스타웨딩홀 옆)
분양문의 1600-2949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투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2 계약시부터 계약금×연 5% 수익지급
3 연 10일 무료숙박(성수기 2일/비수기 8일)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컷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운영 (주)유탑디엔씨 시공 (주)유탑건설 (주)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CM (주)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신탁 (주)무궁화신탁 운영자문 (주)팰리스호텔&리조트 분양대행사 (주)수현